

arts change the world

예술 
단체 지배구조
조사설계 연구

/ 2020. 8

예술단체 지배구조 조사설계 연구

2020년 8월 인쇄
2020년 8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 지배구조 조사설계 연구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예술단체 지배구조 조사설계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주관기관 : 서울행정학회

연구책임자 : 이 선 영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김 태 훈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연구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1. 연구 필요성	2
	2. 연구 목적	5
제2장	예술분야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사전연구조사	6
	제1절 : 국내외 예술단체 법인격 소유구조 사례조사	7
	1. 국내 문화예술단체 지정현황 및 법인격 형태	7
	2. 문화예술단체 지배구조 사례조사	13
	제2절 : 지원사업별 법인격 유형자료 분석결과	23
	1. 연수단원지원사업	23
	2.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29
제3장	한국 예술단체 법인격 유형 현장조사 결과	35
	제1절: 한국 예술단체 법인격 현장 실태조사 결과	36
	1. 트러스트무용단 현황 및 인터뷰 조사 결과	36
	2. 통의동 보안여관 현황 및 인터뷰 조사 결과	41
	3. 서울오라토리오 현황 및 인터뷰 조사 결과	47
	제2절: 한국 예술단체 실태조사 종합 결과	54
제4장	결론	57
	제1절 연구 요약	58
	제2절 시사점	60
	참고문헌	62
부록	예술단체 지배구조 조사설계 연구 인터뷰지	63

표 목차

<표 2-1> 법인격유형별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2019년 12월기준)	8
<표 2-2> 2018년 연수단원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27
<표 2-3> 2019년 연수단원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28
<표 2-4>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33
<표 2-5>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34
<표 3-1> 예술단체 실태조사 종합결과	56

그림목차

<그림 2-1> 지역별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2019)	7
<그림 2-2> 사회적 협동조합 구조와 유형	11
<그림 2-3>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	13
<그림 2-4>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지배구조	14
<그림 2-5>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배구조	15
<그림 2-6> 경계없는예술(Arts Sans Frontieres) 조직구조	16
<그림 2-7> 서울프린지네트워크	17
<그림 2-8> (재)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18
<그림 2-9>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회 소개(2019 기준)	19
<그림 2-10> (재)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
<그림 2-11> (재)부천문화재단 규정 공개	21
<그림 2-12> 드림위즈양상블 구조	22
<그림 2-13> 2018년 연수단원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23
<그림 2-14> 2019년 연수단원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24
<그림 2-15> 2018년 연수단원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25
<그림 2-16> 2019년 연수단원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26
<그림 2-17>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29
<그림 2-18>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30
<그림 2-19>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31
<그림 2-20>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32
<그림 3-1> 통의동 보안여관 현장방문 사진	42
<그림 3-2> 통의동 보안여관 건물현황	43
<그림 3-3> 통의동 보안여관 전시상황	46
<그림 3-4>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48
<그림 3-5> 서울오라토리오 드보르작 아카데미	50
<그림 3-6> 서울오라토리오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쿨(IADCC)	50
<그림 3-7> 서울오라토리오 사회공헌 현황	51
<그림 3-8> 서울오라토리오 후원회	5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2018년 3월, 한국문화예술계의 미투(MeToo)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단체 지배구조의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극단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연극연출가 이운택씨 징역 7년 실형 확정(경향신문, 2019)
 - 극단 내부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9년간 여성연극인 9명이상을 25차례 이상 연기지도 명분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리더였으나, 외부에서는 한국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가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야기함.
 - 즉 문화예술적 성과는 외부적으로 우수하나, 내부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낮은 예술단체에 대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시점
-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매년 예술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창작지원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지원의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예술단체의 성장규모와 지배구조, 법인격 등 총체적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예술단체별 단계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
 - 대표적으로 예술인력지원사업에는 연수단원지원사업,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술인력 교육프로그램을 향후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단체의 다양한 법인격 형태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한 사업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가짐.
 - 창작지원사업에는 각종 문학, 시각예술과 공연, 다원예술 등 국민의 창조와 향유를 위한 인프라사업으로 ARKO사업이 대표적이거나, 이러한 창작지원성과가 앞서 지원한 예술인력지원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계적 측면에서 부족함.
 - 이에 한국문화예술단체의 지원체계 미래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단체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한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함.

□ 전문문화예술법인단체지원제도를 통한 우수예술단체 지원구조 마련

-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육성제도란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음. 초기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의 도입배경에는 2가지가 있음. 첫째 정부 혹은 지자체가 직접 예술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 침해와 방만한 운영, 효율성 저하를 문제로 제시, 둘째로는 공연단체수가 증가하나 전문직업예술단체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공연시스템 적용할 수 있는 전문단체 집중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문화체육관광부, 2019 지역간담회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제도는 현재 "예술단체나 공연장 운영,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우수한 예술법인단체에 기부금품 모집허용, 세제 혜택 등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각 권역에서 우수단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 즉 세제 혜택과 각종 혜택¹⁾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의 진흥을 위한 지원 구조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전문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형태를 띄고 있어 지속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외부 인센티브가 아닌 예술단체 내부의 지배구조와 운영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원방향과 전략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각 지원단체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 창작지원과 실효성있는 예술인력지원사업을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운영구조에 따른 세밀한 전략이 필요

-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주체에 따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미래목표, 전략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지배구조와 관리체계의 소유구조가 관련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임(이창민, 2015: 818).
- 이상철(2002)은 문화예술서비스를 관리하는 하는 방식에 있어 직접, 간접관리

1)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

방식을 언급하였으며, 직접관리방식은 행정기관에서 관련사업을 공급, 간접은 시설소유는 국가와 지자체이나 시설운영측면은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형태로 하는 관리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 이상철 외(2006)에서는 지배구조를 공기업과 일반기업로 분류함. 공기업지배구조방식은 소유자가 정부로서 주요의사결정자들을 정부가 규제, 감독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일반기업지배구조는 권력배분을 둘러싼 이사회, 이해관계자 등이 소유자로서 감독하는 형태를 의미함.
- 이창민(2015)은 문화예술기관 운영의 의사결정자들이 각 위원회, 이사회,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직접운영과 공기업, 법인이 운영주체인 문화예술기관 등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이에 지배구조의 특징을 위원회의 종류, 운영위원회 활성화 정도, 예술단체 내 관장출신배경을 주요특징으로 언급함.

□ 문화예술단체 지배구조와 운영구조에 따른 성과 차이 의견 부분

- 이상철, 고수정, 장철영(2006)에서는 광역소재 19개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조직운영주체별 효율성을 검증한 결과 공공방식의 서비스 공급방식이 민간위탁방식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으며, 아직까지 민간위탁기관들이 서비스 질 개선과 운영효율성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주장
- 반면 이창민(2014/2015)은 문화예술기관 82개 대상으로 운영주체, 지배구조, 관리체계상 효율성 분석결과 정부직영기관보다 민간위탁기관들이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장 가동률, 기관운영수익률이 민간위탁기관들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문화예술단체 지역과 대상에 따라 일부 통제변수가 필요하나, 현재 선행연구에서는 관련 단체들의 지배구조형태가 성과에 미치는 결과가 상이한 상황.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장기 창작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 지배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함.
 -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단체들의 지배구조의 특징, 형태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왜 그러한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단체들의 법인격 유형화 현황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신청단체들의 법인격별-개인사업자단체, 임의단체, 사단법인 등-의 형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인격 유형구조에 대해 관련자 인터뷰를 통하여 심층분석을 실시

제2장

예술분야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내외 사전연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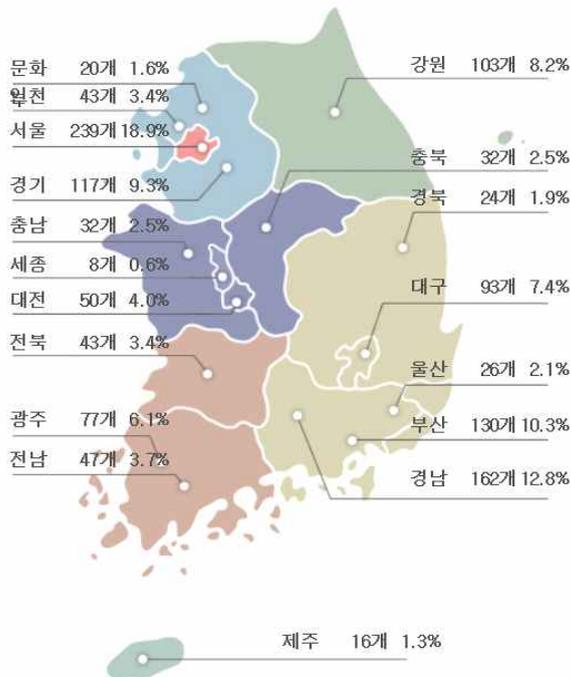
제1절 국내외 예술단체 법인격 소유구조 사례조사

1. 국내 문화예술단체 지정현황 및 법인격 형태

□ 2019년 기준, 지역별 전체 1,262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2019)

- 지역별로는 서울 239개(18.9%)로 가장 많고, 경남 162개(12.8%)이 두번째로 많음.
-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 8개(0.6%)이며, 제주 16개(1.3%), 울산 26개(2.1%)임

<그림 2-1> 지역별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2019)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2019)

- 법인격 지정형태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예술경영센터, 2019기준)
 - 2019년 기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343개
 - (사)21세기청년작가협회(미술/시각예술),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 (사)강원오페라단(음악), (사)경기화성두레농악보존회(전통) 등 포함
 - 임의단체는 총 797개
 - 서울오라토리오, 국악단 소리개 충북지부, 한국국악협회세종시지회, 한국예총 거제지회, 한국예총 사천시지회, 극공작소 마방진, 극단 객석과 무대, 공연예술촌 연바람 등
 - 재단법인은 총 118개
 - (재)강남문화재단, (재)강릉문화재단, (재)경기문화재단,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광주문화재단 등
 -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4개만 존재
 - 나무시어터 사회적 협동조합(연극), 사회적협동조합드림위즈앙상블(음악), 재능나눔사회적협동조합(음악),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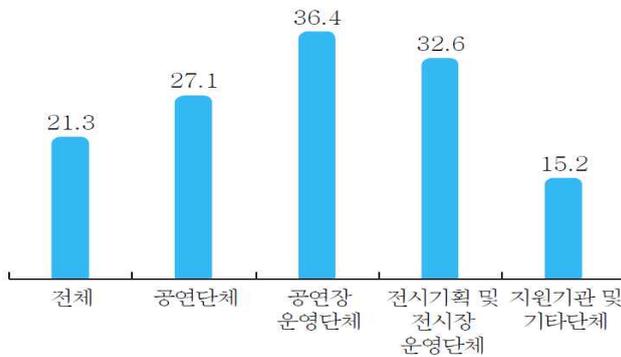
<표 2-1> 법인격유형별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2019년 12월기준)

법인격유형				
임의단체	비영리법인			합계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797	343	118	4	1262

-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제도의 지역별 운영현황
 - 서울: 단체지정공고 9월, 지정 11월, 지정횟수 1년 1회(최초지정일자: 2001.12.31)
 - 경기: 지정공고 10월, 지정 1월, 지정횟수 1년 1회
 - 인천: 지정공고 10월, 지정 12월, 지정횟수 1년 1회
 - 대전: 지정공고 2월, 지정 3월, 지정횟수 1년 1회

- 세종: 지정공고 10월, 지정12월, 지정횟수 1년 1회
- 충북 지정공고 10월, 지정12월, 지정횟수 1년 1회
- 충남: 지정공고 12월 지정2월 지정횟수 1년 1회
- 강원: 지정공고 11월, 지정12월, 지정횟수 1년 1회
- 광주: 지정공고 10월, 지정 12월, 지정횟수 1년 1회(최초지정일자: 2001.12.18)
- 전북 : 지정공고 10월, 지정 12월, 지정횟수 1년 1회
- 전남: 지정공고 2월, 지정 4월, 지정횟수 1년 1회
- 부산: 지정공고 7월, 지정 11월, 지정횟수 1년 1회
- 대구: 지정공고 4월, 지정 5월, 지정횟수 1년 1회(최초지정일자: 2002.3.30)
- 울산: 지정공고 1월, 지정 2월, 지정횟수 2년 1회
- 경북: 수시모집
- 경남: 지정공고 10월, 지정 12월, 지정횟수 1년 1회(최초지정일자: 2001.12.31)
- 제주: 지정공고 9월, 지정11월, 지정횟수 1년1회(최초지정일자: 2002.2.9)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1.3%(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지역간담회)



□ 2019 전문예술단체 법인격 형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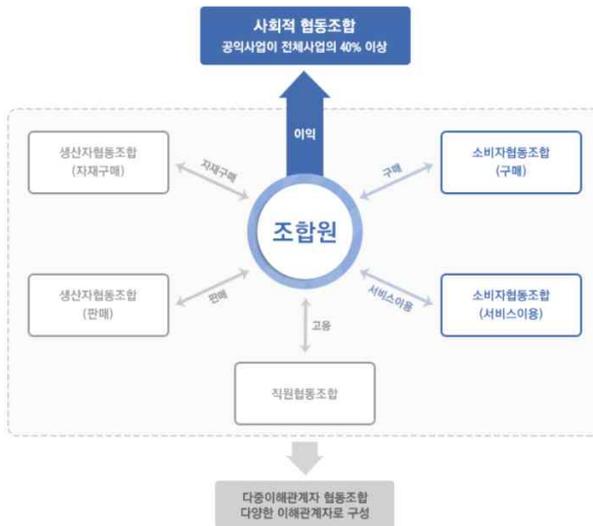
- 임의단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형태
 - 임의단체개념: 설립자 및 재산 등 임의로 구성되어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이 쉬움.
 - 임의단체는 단체의 설립 및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도 쉽기 때문에 동인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상당기간 임의단체로 유지하다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임의단체로 계속 유지하면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문화예술단체 중 임의 단체의 한계: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서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로 변질될 수 있는 문제점 발생. 물론 현재 임의 단체들은 비영리단체로 대우받고자 하는 경향이 높고, 임의단체 대표자가 수익사업 발생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발생.
- 일정범위 내에서 법인격 인정되나 대부분 법인격 없는 사단
- 개인 혼자 혹은 직원고용하여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개념: 개인 혹은 직원 고용하여 단독사업자 의미하며 영리단체에 속함.
 - 개인사업자의 장점: 설립, 해산 등 절차가 없고, 최소 사업자금 제한이 없으므로 신생단체일 경우 가장 쉽게 등록가능
 - 개인사업자의 단점: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과 사용되지 않는 재산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개인대표자의 채무가 강제집행될 시 단체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법인격 취득을 위한 재산분리가 필요함.
- 비영리 법인(사단/재단)
 - 비영리법인 개념: 민법 제32조에 의한 설립 혹은 기타특별법에 근거하여 학술과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설립. 단,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비영리목적 달성을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도 일부 인정.
 - 비영리사단법인: 일정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인정

- 비영리재단법인: 일정목적을 위해 출현한 재산에 법인격 인정단체
- 비영리법인의 특징: 이윤추구를 목적치 않음, 사적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으며, 사회적 요구에 의한 자본조달,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임의로 처부하지 못함.

－ 협동조합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다양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에 균형을 이룰수 있는 분야별 협동조합 형성
- 이용자의 관점에서 투자자 일반영리회사와 구분, 즉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으로 문화예술단체 설립시 ‘영리법인격의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활동가능

<그림 2-2> 사회적 협동조합 구조와 유형



－ 주식회사 포함한 영리법인

- 상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한 집단
-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

- 문화예술단체의 주식회사는 1인이상의 사원(주주)로 구성하고,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 유한책임을 지고 있음.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발기인 구성-> 2. 자본금 결정 -> 3. 상호의 결정 ->4. 정관 작성 ->5. 주식발행사항 결정 -> 6. 설립방식의 선택 -> 7.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 ->8. 발기설립 시 출자이행 -> 9. 발기설립 시 이사와 감사선임 ->10. 발기설립 시 조사와 보고 -> 11. 발기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 -> 12. 설립등기 ->13.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매입 -> 14. 설립등기

□ 문화예술단체 사업자유형 3가지

-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면세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면세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가진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문화예술단체 지배구조 사례조사

□ 비영리 사단법인사례 1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 2002년 1월,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하여 2007년 1월 경기도 지정전문예술단체로 선정,
- 2008년 11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9년 6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 사회적일자리단체로 선정
-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되어 현재까지 진행
-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사단법인의 특징: 민족주의 음악가를 새롭게 조명하는 오케스트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기연주회에서 민족주의 음악연주를 통해 자국의 민족적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던 작곡가들과 정서적 교감, 우리민족과 음악의 관계 재정립하고 있음.
-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의 지배구조는 현 김승복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밖에 음악감독 겸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 사무국(기획, 교육회계)로 구성됨.

<그림 2-3>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



자료. <http://www.gsymphony.org/>

<그림 2-4>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지배구조



- 비영리 사단법인사례 2.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 2017년 2월부터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전문예술 사단법인으로 지정.
 - 만화애니메이션 기업들과 관련 대학교 학과 산학연계 활동실시
 -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지배구조는 1차적으로 BIAF 조직위원회 내 조직위원장, 부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4인체제로 구성되며, 위원회 집행을 위해 대학교수, 감독, 기업대표, 평론가 등 총 8인이 추가 전문가들을 집행위원으로 선정, 운영관리는 사무국에서 담당하는 구조

<그림 2-5>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배구조

1차 의사결정	BIAF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부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2차 집행	BIAF 집행위원 대학교수, 감독, 기업대표, 평론가 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
행정/관리	BIAF 사무국 운영지원, 프로그램, 기획홍 보, 에니페어 등

자료. <https://www.biaf.or.kr:47436/kr/sub.html?pid=16>
 조직도 참조하여 구성

□ 임의단체 사례 1. 경계없는예술(Arts Sans Frontieres)

- 경계없는예술(Arts Sans Frontieres) 임의단체는 2009년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제2009-35호)로 지정.
- 2010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2011년 2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경계없는예술(Arts Sans Frontieres)는 임의단체지만, 이화원 대표, 그 외 운영자문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무국을 통하여 기획, 창작, 교육, 연구, 공간운영을 진행하고 있음.
- 수입발생규모는 대부분은 지자체지원금, 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으로 운영.

<그림 2-6> 경계없는예술(Arts Sans Frontieres)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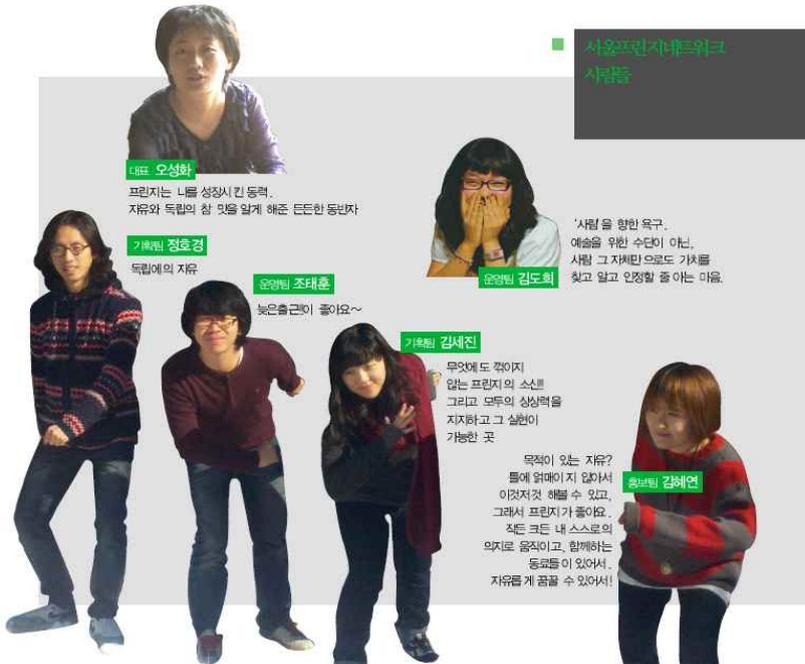


자료. <https://www.casf.or.kr/about>

□ 임의단체 사례 2.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1998년 독립예술제 집행위원회가 발족, 2000년 서울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후 2002년 서울프린지네트워크로 명칭변경
- 2003년 서울시 전문예술단체 등록. 초기 단체대표는 독립예술제 집행위원장 이규석 대표로 시작했으나, 2010년 오성화 대표로 변경
- 2009년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시행
- 현재 문화행사기획, 자원활동가 운영, 문화예술컨설팅, 마포구 문화예술 연구 및 조사수행 등을 실시

<그림 2-7>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자료. 서울프린지네트워크(2009) 간행물

<https://www.seoulfringe.net:5633/fringenetwork/groupinfo.asp>

□ 재단법인 사례 1. (재)안양문화예술재단

- 2008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조례공포, 2009년 5월, 안양문화예술재단 출범 1대 박형식 대표이사 취임
- 2016년 안양역사관 명칭변경하여 안양박물관, 김중업박물관 명칭변경 김중업 건축박물관
- 2019년 1월 제6대 박인옥 대표이사 취임.
-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은 안양시장(최대호시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박인호 이사), 안양시 복지문화국장으로 구성.
- 선임직이사는 12명으로 구성(관련기업, 교수, 감독 등 전문가 구성), 선임직 감사는 2명으로 구성
- 정보공개 홈페이지란을 통해 매년 경영공시, 경영실적평가결과, 예결산, 외부 기관 감사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그림 2-8> (재)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자료. (재)안양문화예술재단 공식홈페이지.

<http://www.ayac.or.kr/main/main.asp>

<그림 2-9>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회 소개(2019 기준)

임직원 소개		이사회 소개	
직위	성명	현직위	비고
당연직 이사	최대호	안양시장	이사장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정옥란	안양시 복지문화국장	
선임직 이사	조윤정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과 교수	
	이덕형	(주)앨엔비 대표이사	
	김영준	(주)휴로테크 대표	
	이재옥	(사)한국예총 안양지회 회장	
	유진형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 교수	
	김주한	대한가수협회 안양시지부장	
	박경진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한국디자인협회 회장	
	조현호	연성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사)한국미술협회 이사	
	정병규	(前)안양문화원 원장	
	김진홍	영화감독	
	최태규	(주)상상공장 대표	
	이애리	운채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선임직 감사	김대엽	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교수	
	박승열	박승열세무사사무소 대표	

자료. http://www.ayac.or.kr/ayac/ayac_05_2.asp

□ 재단법인 사례 2. (재)부천문화재단

- 2001년 4월, 부천문화재단 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 2001년 9월, 부천문화재단 법인 설립허가(경기도지사), 같은해 10월 재단출범
-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무지개다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 2016년/2017년 부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가'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 2019년 홍승찬 민간 비상임 이사장 취임, 같은 해 7월 문체부 대한민국지속가능 혁신리더대상 수상
- 부천문화재단의 이사회는 선임직 홍승찬 민간이사장과 송경년 선임직 대표이사,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0명, 2명의 비상임감사(당연직 1명, 선임직 회계사 1명 구성). 즉 선임직과 당연직의 조화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배구조를 가짐.
- 한편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재단규정과 행정관리 규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

<그림 2-10> (재)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 <http://www.bcf.or.kr/main/main.act>

<그림 2-11> (재)부천문화재단 규정 공개

부천문화재단

인사말
운영목표
연혁/CI
조직과 기구
재단규정
제1편 조례·정관
제2편 조직규정
제3편 위탁사무규정
제4편 관리규정
재단규정 행정예고
윤리경영
청렴정보

제4편 관리규정

제1장 인사노무부문	제2장 총무부문	제3장 재무회계부문	제4장 계약직직원 인사노무부문	제5장 맞춤형복지부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7. 10. 24. 규정 제306호>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시행 2015. 2. 13. 규정 제248호>				
[임직원행동강령] <시행 2019. 3. 27. 규정 제330호>				
[윤리규정] <시행 2017. 1. 20. 규정 제290호>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시행 2011. 12. 22. 규정 제157호>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시행 2017. 1. 1. 규정 제286호>				
[보수규정] <시행 2018. 11. 19. 규정 제326호>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시행 2014. 9. 4. 세칙 제27호>				
[인사규정세칙] <시행 2019. 3. 27. 세칙 제56호>				
[인사규정] <시행 2019. 8. 28. 규정 제335호>				

자료. <http://www.bcf.or.kr/abou/foundationRule/foundationRule4List.act>

□ 사회적협동조합 사례. 드림위드앙상블

- 2015년 성남시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사업 창업팀으로 선정되고, 8월 정기이사회 개최를 통한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0009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9월에 등기 완료
- 2015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북부지사화 사회공헌 파트너십 MOU체결
- 매년 총회를 통해 주요의사결정,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와 감사, 운영위원회로 구성.

<그림 2-12> 드림위드앙상블 구조



자료. <http://www.dreamwith.or.kr/s01/s06.php>

제2절 지원사업별 법인격 유형자료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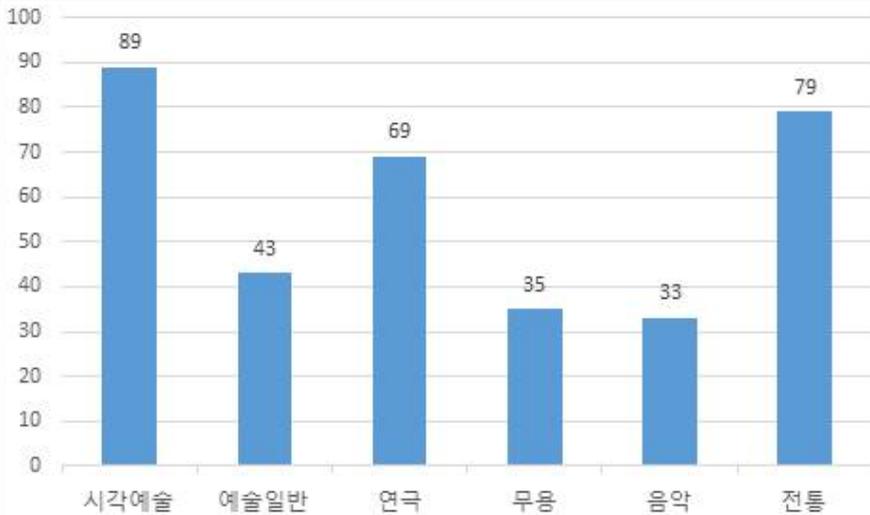
1. 연수단원지원사업

1-1. 지원단체 현황

□ 2018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 2018년 연수단원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총 348개 단체임
- 단체유형 중 시각예술이 89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 79개 단체, 연극 69개 단체, 예술일반 43개 단체, 무용 35개 단체, 음악 33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3> 2018년 연수단원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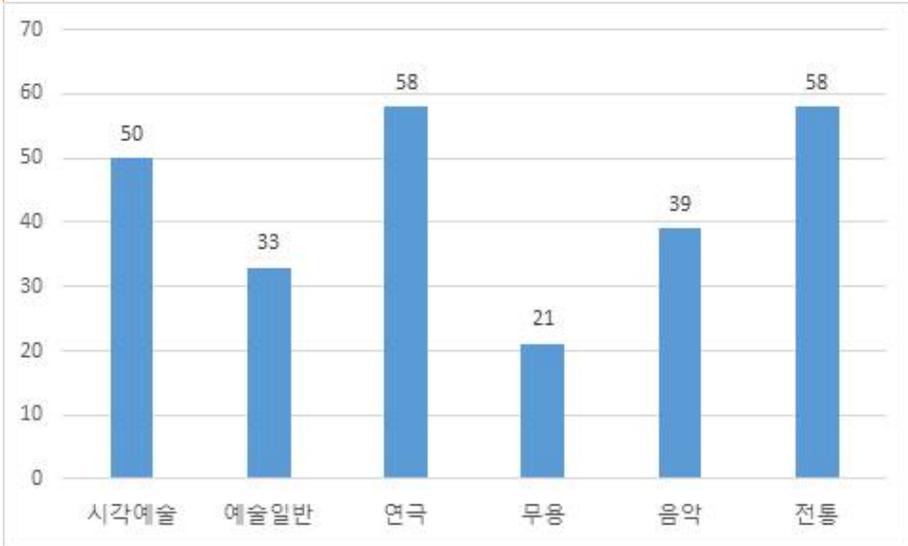


구분	시각예술	예술일반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단체 수	89	43	69	35	33	79	348
비중(%)	25.6	12.4	19.8	10.1	9.5	22.7	100.0

□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총 259개 단체임
- 단체유형 중 연극과 전통이 각 58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예술 50개 단체, 음악 39개 단체, 예술일반 33개 단체, 무용 21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4>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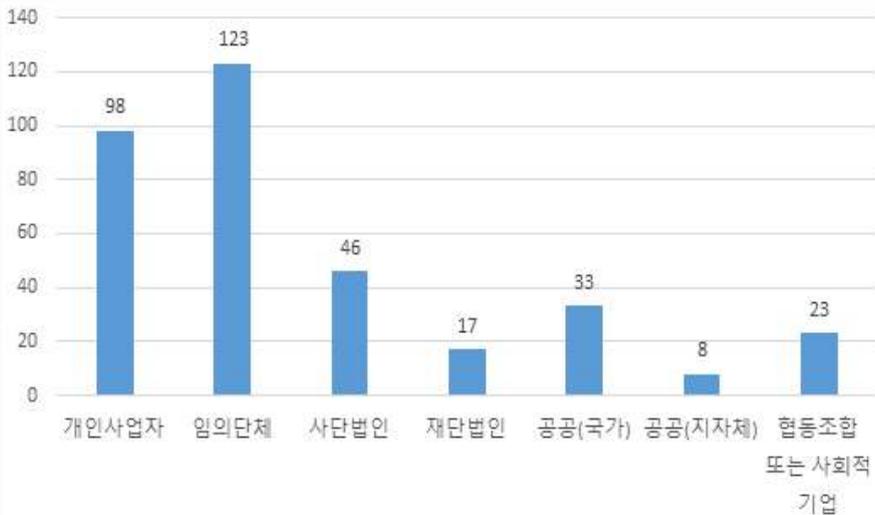
구분	시각예술	예술일반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단체 수	50	33	58	21	39	58	259
비중(%)	19.3	12.7	22.4	8.1	15.1	22.4	100.0

1-2. 지원단체 법적 유형

□ 2018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 2018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임의단체가 123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 98개 단체, 사단법인 46개 단체, 공공(국가) 33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23개 단체, 재단법인 17개 단체, 공공(지자체) 8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5> 2018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구분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공(국가)	공공(지자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합계
단체 수	98	123	46	17	33	8	23	348
비중(%)	28.2	35.3	13.2	4.9	9.5	2.3	6.6	100.0

□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77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 69개 단체, 재단법인 47개 단체, 임의단체 24개 단체, 기타 24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17개 단체, 공공(지자체) 1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6>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구분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공(지자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기타	합계
단체 수	77	24	69	47	1	16	25	259
비중(%)	29.7	9.3	26.6	18.1	0.4	6.2	9.7	100.0

1-3. 지원단체 분야별 법적 유형

- 2018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분야별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44개 단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임의단체 17개 단체, 재단법인 13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일반 분야의 경우, 공공(국가)가 25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지자체) 6개 단체, 임의단체 4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연극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28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단체 18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12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무용의 경우, 임의단체가 19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 11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음악의 경우, 임의단체가 19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 7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전통의 경우, 임의단체가 46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이 14개 단체, 개인사업자 11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표 2-2> 2018년 연수단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구분	시각예술	예술일반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개인사업자	44	1	28	11	3	11	98
임의단체	17	4	18	19	19	46	123
사단법인	11	2	10	2	7	14	46
재단법인	13	2	0	0	1	1	17
공공(국가)	0	25	1	1	3	3	33
공공(지자체)	2	6	0	0	0	0	8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2	3	12	2	0	4	23
합계	89	43	69	35	33	79	348

-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 지원단체 분야별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22개 단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재단법인 15개 단체, 사단법인 5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일반 분야의 경우, 재단법인 18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7개 단체로 나타남.
 - 연극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23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 15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7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무용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사단법인이 각 6개 단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음악은 사단법인 19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각 5개 단체로 나타남.
 - 전통의 경우, 사단법인 20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 14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표 2-3> 2019년 연수단원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구분	시각예술	예술일반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개인사업자	22	7	23	6	5	14	77
임의단체	4	1	6	3	3	7	24
사단법인	5	4	15	6	19	20	69
재단법인	15	18	4	2	4	4	47
공공(지자체)	1	0	0	0	0	0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0	1	7	1	5	2	16
기타	3	2	3	3	3	11	25
합계	50	33	58	21	39	58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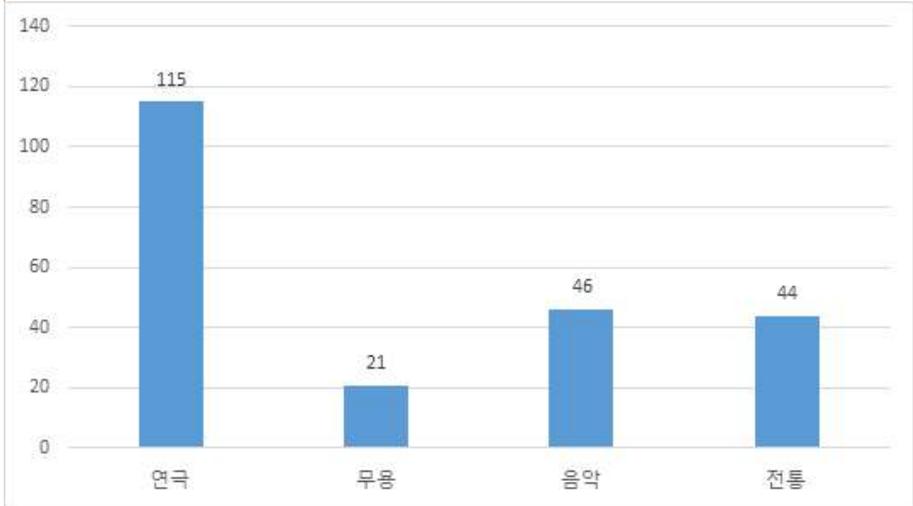
2.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1-1. 지원단체 현황

□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총 226개 단체임
- 단체유형 중 연극이 115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46개 단체, 전통 44개 단체, 무용 21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7>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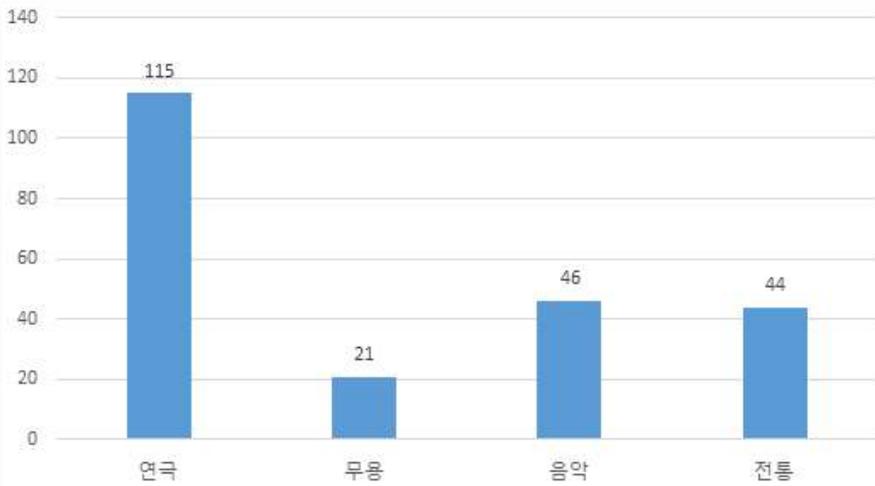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단체 수	115	21	46	44	226
비중(%)	50.9	9.3	20.4	19.5	100.0

□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신청한 단체는 총 203개 단체임
- 단체유형 중 연극이 83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 51개 단체, 전통 47개 단체, 무용 22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8>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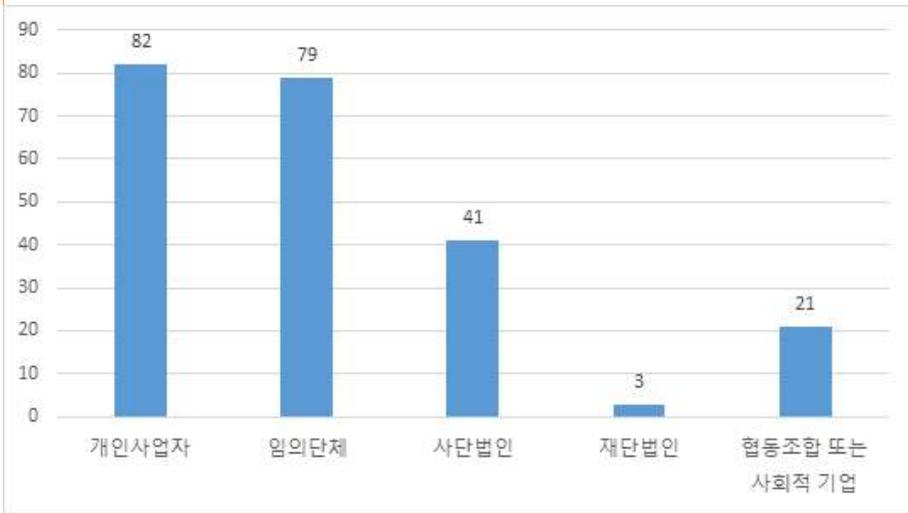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단체 수	83	22	51	47	203
비중(%)	40.9	10.8	25.1	23.2	100.0

1-2. 지원단체 법적 유형

□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82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단체 79개 단체, 사단법인 41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21개 단체, 재단법인 3개 단체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19>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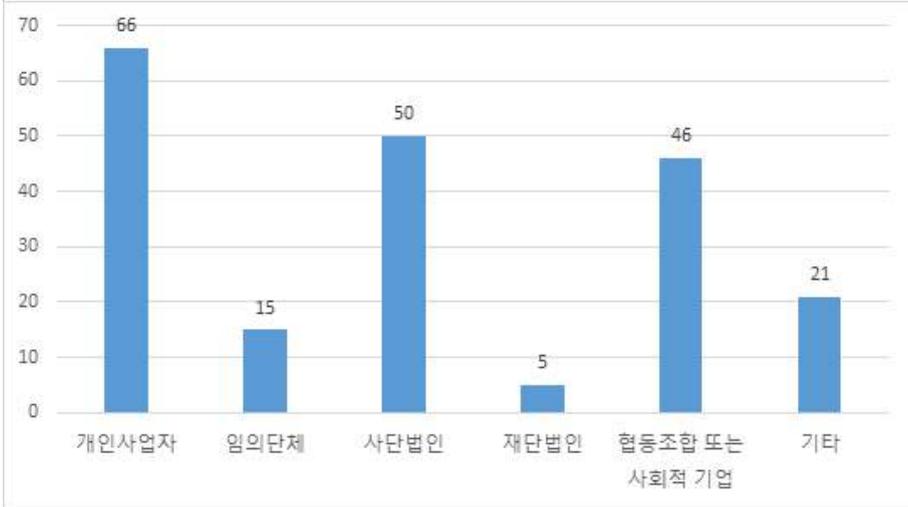


구분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합계
단체 수	82	79	41	3	21	226
비중(%)	36.3	35.0	18.1	1.3	9.3	100.0

□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82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단체 79개 단체, 사단법인 41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21개 단체, 재단법인 3개 단체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20>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법적 유형



구분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기타	합계
단체 수	66	15	50	5	46	21	203
비중(%)	32.5	7.4	24.6	2.5	22.7	10.3	100.0

1-3. 지원단체 분야별 법적 유형

□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분야별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극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55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단체 32개 단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14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무용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9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임의단체 8개 단체, 사단법인 3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음악의 경우, 임의단체가 19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 16개 단체, 개인사업자 8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전통의 경우, 임의단체 20개 단체, 개인사업자 10개 단체, 사단법인 9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표 2-4> 2018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개인사업자	55	9	8	10	82
임의단체	32	8	19	20	79
사단법인	13	3	16	9	41
재단법인	1	0	1	1	3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14	1	2	4	21
합계	115	21	46	44	226

-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단체 분야별 법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극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36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사단법인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각각 16개 단체, 기타 9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무용의 경우, 사단법인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각 7개 단체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 6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음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사단법인이 각 15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12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 전통의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이 16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사단법인이 12개 단체, 개인사업자 9개 단체 순으로 나타남.

<표 2-5> 2019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분야별 법적 유형

구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합계
개인사업자	36	6	15	9	66
임의단체	3	0	4	8	15
사단법인	16	7	15	12	50
재단법인	3	0	1	1	5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16	2	12	16	46
기타	9	7	4	1	21
합계	83	22	51	47	203

제3장

한국 예술단체 법인격 유형 현장조사

제1절 한국 예술단체 법인격 현장 실태조사결과

1. 트러스트무용단 현황 및 인터뷰 조사결과

1-1. 기본현황

- 개인사업자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사례 (사)트러스트무용단
- 트러스트무용단은 1995년 부산에서 창단한 최초의 독립 춤 단체로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식의 창작품을 지향하는 공연,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로 치유와 소통의 공간인 교육 및 공연 활동을 통한 나눔과 소통의 몸으로 나눔을 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통하여 춤과 삶의 공동체를 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트러스트무용단은 1995년 부산 신라대 출신이자 하야로바 현대무용단의 대표였던 김형희와 부산대 무용학과 출신 김윤규가 창단한 무용단으로 1995년 6월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의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2월 부산에서 서울로 근거지를 옮겨 전국적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트러스트무용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춤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 둘째, 정기적인 창작활동과 지역 초청 및 순회공연 등 국내 공연활동
 - 셋째, 2000년 일본에서의 순회공연, 2001년 독일순회공연, 중국 상해 워크숍 개최, 2006년~2008년 네덜란드 맥파이뮤직댄스컴퍼니와의 공동 워크숍, 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IACD)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등지에서 평화 춤 관 기획 등 국외 작품 및 활동
 - 넷째, 서구 중심의 문화예술교류의 한계를 넘어서 실크로드 각 나라들과의 교류를 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

- 트러스트무용단의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트러스트무용단은 2017년 기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며, 이중 2명은 경영분야, 3명은 창작 및 실연분야에 근무하고 있음.
- 트러스트무용단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최근 3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지역예술가참여순회사업, 문화예술기관연수단지원사업
 - 2018년: 장애인시설순회사업
 - 2019년: 신나는 예술여행(순회처 매칭형)
- 이중 2017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지원사업의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음.

공연명	행사명	장소	진행횟수	공연된 작품 수 (공연의 경우만)	참여자수 (관객 또는 행사 참여자)
2017 국립극장 겨울방학예술학교	국립극장 어린이 예술교육프로그램	별오름극장	8	0	100
케인 앤 무브먼트	2017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트러스트무용단 연습실	30	0	15
케인 앤 무브먼트 장애인역량강화 쇼케이스	2017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트러스트무용단 스튜디오	1	1	40
TEPT (Transcultural Encounter Project with Trust)	2017 문화동반자 사업	트러스트무용단 연습실	90	0	4
TEPT 쇼케이스	2017 문화동반자 사업	트러스트무용단 스튜디오	1	1	25
콩나무놀이터 <바리바리>	개봉어린이도서관 초청공연	트러스트무용단 스튜디오	1	1	30
CANE & Movement -시선 1+1	2017 장애인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사업	서강대메리홀 대극장	2	1	350

신나는 예술여행 <바리바리 콘서트>	2017년도 소의계층문화 순회사업	살레시오청소년 센터 등 12개처	12	1	400
Pipe Way with Trust	2017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라오스 씨영광 주	3	1	75
합계			333	6	1039

1-2. 트러스트무용단 대표자 인터뷰 결과

- 트러스트무용단이 1995년 창립될 당시, 특정 소속이 아닌 독립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작된 무용단. 즉 학교 관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대중화와 소외된 자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창립
- 부산에서 초기 트러스트 무용단이 창립되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원규모가 매우 큰 차이 발생하여 2000년 8명의 단원들과 함께 서울시로 무용단 이전함.
 - 당시 서울시 무용단 지원액 400만원, 부산시 지원액 100만원 차이로 부산시에서 지원받아서 무용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
- 트러스트무용단이 법인격을 개인사업자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유는 정부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2007~2009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3년간 집중지원을 받아 무용단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
 - 하지만 2009년이후 문예위 집중지원사업이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지원처를 찾아야 했고, 당시 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을 통해 트러스트무용단이 지원을 받게 됨.
 - 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 예술경영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고, 트러스트무용단은 개인사업자단체에서 사단법인화로 전환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결국에는 사회적기업인증에는 실패함
- 트러스트무용단이 법인격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후 얻게 된 긍정적 요소는 사회가 무용단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 무용단 스스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사단법인으로 전환 후 발생
 - 평창인증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했던 이유도 되었으며, 상주직원을 3명이상 고용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현재 트러스트무용단의 주요 수입발생처는 ‘정부 지원금’
- 서울문화재단, 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하여 무용단 운영이 진행됨
 - 메세나에서 7년간 기타 지원을 받기도 함.
 - 무용단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음
- 트러스트무용단의 지배구조는 대표, 이사회, 운영사무국으로 구성됨.
- 대표는 창작기획, 운영비 마련 역할
 - 운영사무국은 프로그램 지원처 찾아 교육, 행정의 역할
 - 이사회는 연체보고서를 검토
- 트러스트무용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중장기 사업에 대한 장기지원, 현장중심의 심사위원 선발 등 제시
- 2007년부터 3년간 트러스트무용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중지원을 해주어서 오늘날 현 무용단이 됨.
 - 장기지원을 통해 보자 지속적인 우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마련 필요
 - 무용계의 다양한 영역분포에 맞는 현장중심의 심사위원 선발 필요

2. 통의동 보안여관 현황 및 인터뷰 조사결과

2-1. 기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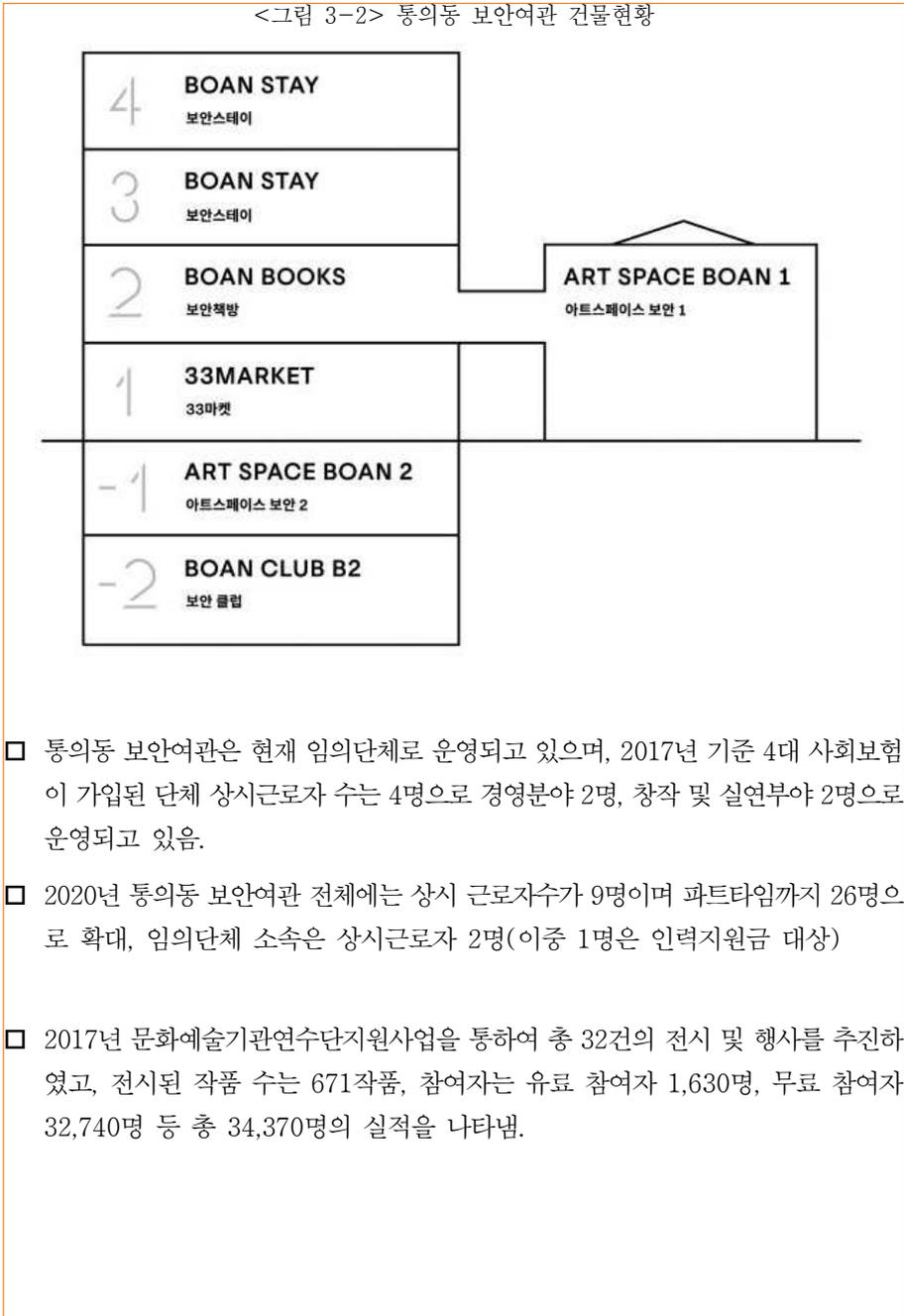
- 통의동 보안여관은 1942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생겨난 여관으로 서정주, 김동리 등 문인들이 ‘시인부락’이라는 문학동인지를 탄생시키고, 여러 예술가들의 아지트로 역할을 수행함. 2004년 여관의 수명이 다하여 문을 닫았으나, 2007년 문화숙박업으로 재탄생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
- 2017년 통의동 보안여관은 기존 건물 옆에 새롭게 신관을 건축하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카페, 프로젝트공간(보안클럽), 서점(보안책방), 전시공간(보안1942) 등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보안여관은 원래의 숙박기능을 수행하던 곳으로 신관 3,4층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보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음.
 - 보안클럽은 보연여관에서 열리는 전시 이외의 공연, 렉처, 스크리닝, 퍼포먼스, 대담, 팝업식당 등 동시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공간임.
 - 보안책방은 일종의 북카페로써 책 판매 뿐 아니라 세미나, 공연, 워크숍, 독서모임 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고 있음.
 - 통의동 보안여관의 전시공간은 지난 10여년간 약 1백여 회의 전시와 퍼포먼스들이 생산된 공간으로, 시각예술 전시 뿐 아니라 플리마켓, 청년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프랑스, 영국 등과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생활밀착형 예술을 지향하는 공간임.



<그림 3-1> 통의동 보안여관 현장방문 사진



<그림 3-2> 통의동 보안여관 건물현황



- 통의동 보안여관은 현재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 단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경영분야 2명, 창작 및 실연분야 2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20년 통의동 보안여관 전체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9명이며 파트타임까지 26명으로 확대, 임의단체 소속은 상시근로자 2명(이중 1명은 인력지원금 대상)
- 2017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지지원사업을 통하여 총 32건의 전시 및 행사를 추진하였고, 전시된 작품 수는 671작품, 참여자는 유료 참여자 1,630명, 무료 참여자 32,740명 등 총 34,370명의 실적을 나타냄.

2-2. 통의동 보안여관 대표자 인터뷰 결과

- 통의동 보안여관이 현재의 임의단체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비영리성 전시공간을 설명할 만한 마땅한 법인격 부재
 - 초기 비영리 전시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자본규모를 확보하는 예술단체는 많이 존재하지 않음
 - 사단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나 시도지사의 허가로 시작하게 되는 엄격성이 있고, 재단법인은 기본자산이 어느 규모 이상으로 존재해야 시작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영리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의동 보안여관은 결국 비영리성 전시공간인 임의단체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음.
 - 한편 협동조합의 형태 프랑스처럼 자리잡고 있지 않을 때라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음.

- 하지만 통의동 보안여관에서는 현재 연간 프로젝트성 임의단체 형태의 법인격 상황을 만족하지는 않음.
 - 임의단체는 적절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매년 연간 프로젝트성 단위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14년간 지속해온 통의동 보안여관의 지속성을 가진 예술공간이므로 적합한 법인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또한 외부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고, 기금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2019년 9월, 전문예술단체로 지원하였으나 회계단체보고서를 요구함으로써 최종에서 선정되지 않았음.
 - 현실적으로 임의단체에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이 어려운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법인격을 전환하기 위한 회계단체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전환한다고 예술단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

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공간지원사업과 연수단원지원사업을 통해 전시와 인력지원을 받고 있음.
 - 2020년 창작공간지원사업의 경우 전시 3개를 만드는 조건으로 연간 3천만원 공적지원 받음
 - 연수단원지원을 통해 상주인력 1명 1,600만원지원 받음
 - 현실적으로 1회 전시시 필요한 비용이 4,500-5,000만원으로 지원비 이외의 지원처가 필요한 상황
 - 이에 비영리재단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자생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일부 영리성을 인정해줘야 함.
- 통의동 보안여관의 지배구조는 대표, 큐레이터, 보안클럽자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됨.
 - 실질적인 창작기획과 결정은 대표와 큐레이터들이 민주적으로 결정
 - 보안클럽자문위원회가 연간 2회씩 진행되고 있으나, 1번 자문시 200-300만원 비용 소모되며 연간 약 600만원정도 감사 비용적 부담 발생
 -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탐색하려는 목적이라면 단체별 자체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과 자체평가지원금을 차별화하여 진행하고, 성과 혹은 애로가 있는 단체는 패널티/성과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사회이사제를 통해 콘텐츠 심사와 기관심사를 문예위에서 별도로 하는 방향도 제시
- 통의동 보안여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비영리성 예술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내부 영리성을 인정해주는 구조 마련
 - 1993년 프랑스의 예술단체 공적기금이 매우 많았으나,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 현재의 문화예술기금도 고갈될 상황에서 공적지원금이 너무 많은 상황
- 창작자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점기관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단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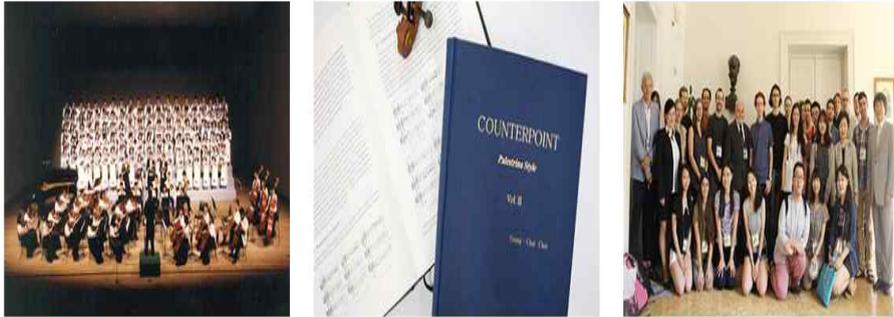
<그림 3-3> 통의동 보안여관 전시상황



3. 서울오라토리오 현황 및 인터뷰 조사결과

3-1. 기본현황

- 서울오라토리오는 정통음악의 계승 및 발전과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설립된 음악예술 연주/연구/교육기관으로 1991년의 설립되었음. 설립 이후 장기계획에 따라 합창단, 드보르작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차례로 설립되었음.
 - 서울오라토리오의 미션은 “정통음악을 부흥시키고 인재를 찾아 육성하며 21세기 음악문화를 선도한다”이며, 비전은 “음악의 본질을 존중하고 작곡가의 이상을 알리다”임.
- 서울오라토리오의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선, 1991년 설립 이후 2009년 까지 오라토리오 콤플렉스를 구성하였음. 구체적으로 1991년 서울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창단하고, 1997년 드보르작 아카데미를 설비, 연구실을 조직함. 2001년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을 설립하였고, 2002년 오케스트라를 설립하였음. 2004년에는 체코외교부에서 실버메달을 수상하였고, 2009년 체코 정부로부터 최영철 감독이 Gratias Agit를 수상함.
 - 2005년부터 2012년은 학술기반 조성 및 인재발굴 육성에 중점을 두었음. 2005년 프라하 콘서바토리/드보르작 아카데미 정규 협력과정을 체결하고, 2010년 국제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쿨을 설립, 2012년 대위법(Counterpoint I, II)을 출판함. 현재도 단성음악, 동서양 음악융합, 음악발달사, 음악미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음.
 -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90개국 음악인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7회 국제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쿨 개최 및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프라하 콘서바토리/드보르작 아카데미 정규 협력과정 12년간 지속, 화성학 Harmony I, II 출판, 400여회의 국내 및 해외 연주회 개최 등 세계화에 힘쓰고 있음.



□ 서울오라토리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연주, 교육/연구/강연, 국제행사, 사회공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연주의 경우, 국내 연주회와 해외연주회가 있으며, 국내연주회의 경우 2020년 2월까지 총 79회의 정기 연주회가 개최되었음.

<그림 3-4> 서울오라토리오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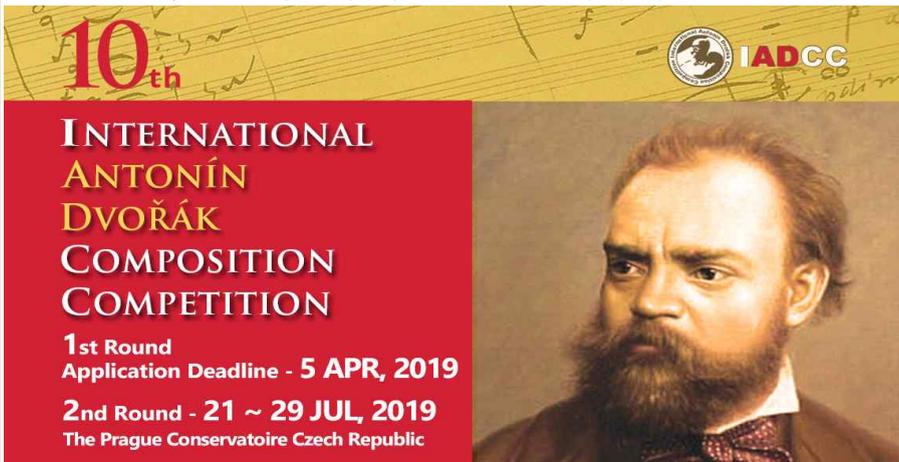
- 교육/연구/강연의 경우, 우선 드보르작 아카데미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음악가들을 배출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프라하 콘서트마토리 드보르작 아카데미와 정규협력학교를 운영하며, 전문연주자에 대해 독창, 독주회,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드보르작 아카데미 음악연구소를 통하여 다성, 단선 음악양식을 연구하고 160,000개의 모범적인 작품들을 과학적 통계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대위법과 화성학으로 출판하였음.
- 그리고 콘서트 특강을 통하여 음악의 역사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3-5> 서울오라토리오 드보르작 아카데미



- 국제행사는 크게 국제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쿨과 국제학술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음. 국제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쿨은 2010년 이후 매년 체코 프라하에서 10회째 개최되었음. 또한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하여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림 3-6> 서울오라토리오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쿨(IADCC)



- 마지막으로 서울오라토리오는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문

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문화소외지역이나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현하고자 정기 연주회의 티켓을 나눔하고 도서산간, 농산어촌, 교도소, 학교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전국 80개소에서 개최하였음.

- 또한 음악을 사랑하는 기업, 지자체, 단체, 교회 등과 협력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추진 중

<그림 3-7> 서울오라토리오 사회공헌 현황



서울오라토리오 사회공헌
 '꿈과 희망의 하루나눔'
 Seouloratorio CSR

3-2. 서울오라토리오 관계자 인터뷰 결과

- 서울오라토리오는 1991년 대표이자 상임지휘자 최영철씨가 7년씩 1기간, 6차례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설립
 - 현재 '임의단체'로 법인격이 설정되어 있음
 - 1999년 세무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사업자로 전환
 - 2001년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 서울오라토리오의 설립배경은 전통음악의 계승과 발전, 사랑을 실천목표로 설립된 음악예술 연구/연구/교육기관임
 - 1991년 포괄적 장기계획에 따라 합창단, 드보르작 아카데미, 오케스트라가 순차적으로 설립
 - 장기연주회, 작은 저녁음악회, 특별연주회, 해외연주회 등 국내외 무대활동
 - 문화발길이 닿지 않는 문화소외지역,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의 음악회 지속적으로 실시

- 서울오라토리오는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 전문예술단체로 법인격을 전환할 계획이 있음.
 - 실제로 2차례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하려고 진행했으나, 전환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단체운영비와 별도로 '사단법인화를 위한 경제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음.
 - 또한 이사회 등 사단법인화 과정에서 원래 서울오라토리오를 설립한 대표자들의 고유한 가치와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들이 발생. 민주적인 절차를 추구하는 과정이 오히려 원래 단체가 가진 가치를 훼손시키는 문제를 다소 발생하기도 함.
 -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법적 효력 등의 이유로 서울오라토리오는 장기적으로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특히 임의단

체의 경우 행정상 단체를 보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음.

- 서울오라토리오의 주요 수입발생처는 ‘월별 후원회 수익이 70%’이상임
 - 후원회 수익이 7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한국메세나 협회 등 지원금 예산의 약 15~20%정도 차지
 - 공연자체수익은 전체 예산 10%

<그림 3-8> 서울오라토리오 후원회

 연주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대를 수놓은 작품연주를 통해 수준 높은 모임을 제시하는 서울오라토리오의 연주활동을 지원합니다.

 국제행사를 지원합니다.

국제 학술세미나행사 및 국제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콩쿠르 등 서울오라토리오가 개최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국제행사를 지원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지원합니다.

연주와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세계 음악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음악가들과 우리음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서울오라토리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합니다.



 학술연구를 지원합니다.

드보르작 아카데미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들을 지원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21세기 정음음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인재육성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음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이웃과 나눔을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실천, 품과 희망의 이루나눔 등 서울오라토리오의 사회공헌 행사를 지원합니다. 음악 활동을 통한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료. http://www.seouloratorio.or.kr/spon_info

- 서울오라토리오의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사장은 대표인 최영철 감독이 진행
 - 합창단, 오케스트라, 드보르작 아카데미, 국제 안토닌 드보르작 작곡 콩쿨위원회, 후원회 각 기관의 임원은 총회를 거쳐 지명, 선출함

제2절 한국 예술단체 실태조사 종합결과

- 예술단체들의 법인격 유형 중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예술단체들의 설립 초기 자금 부족, 단체 규모 등을 고려하거나, 단체의 설립목적이 영리/비영리에 따라 단체의 법인격을 결정함.
 - 설립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
 - 트러스트무용단도 설립초기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였으나, 향후 예술경영센터의 컨설팅과 노동부의 지원으로 현재 ‘사단법인’으로 법인격을 전환할 수 있었음
 - 통의동 보안여관의 경우, 설립초기 자금부족과 비영리적 시각예술공간이라는 설립목표로 인해 임의단체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음.
 - 서울오라토리오의 경우 2차례에 걸쳐 법인격 전환을 시도했으나 법인격 전환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문제와 설립취지를 훼손시킨다는 내외부 의견의 상충으로 법인격전환에 실패함.
- 둘째, 예술단체들의 법인격 전환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법인격전환을 위한 행정교육과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
 - 실태조사 결과, 임의단체기관들의 경우 법인격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법인격을 전환할 경우 법적, 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전체의 인식이 변화되어 단체의 위상 강화될 것이라고 인식
 - 단,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술단체의 고유가치를 지키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화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의 내부 운영비 이외의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문제를 거론

- 셋째, 예술단체들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서는 사회이사제 도입 혹은 자체평가 지원금 지원을 통해 철저히 내부 지배구조 평가체계를 만드는 방식 제시
 - 예술단체 지배구조가 내부의 고유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체(기관)평가 실시
 - 현재의 창작자 지원금과 단체(기관)평가 지원금을 별도로 분리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지원

- 넷째, 개인사업자, 임의예술단체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라는 점
 - 창작자별 지원금체계와 거점기관별 지원체계를 구분하여 예술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
 -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지원금만으로는 자생할 수 없는 단체들에 대해 일부 영리구조를 확보하여 자생방안을 모색하도록 환경 마련
 - 법인격 전환을 통해 예술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동기부여가 필요
 - 분야별 장기 집중지원을 통해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우수단체가 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

<표 3-1> 예술단체 실태조사 종합결과

	트러스트무용단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오라토리오
예술분야	무용	시각예술	음악/연주
법인격 유형	(초기)개인사업자 (현)사단법인	임의단체	임의단체
법인격 전환의사 (o/x)	-	o	o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사무국, 대표	대표, 보안클럽자문위원 회, 큐레이터	대표(이사장), 이사회
이유(원인)	1)경제적 이유 2)지원처의 요구	1)경제적 이유 2)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법인격전환방식의 어려움	1)경제적 이유 2)내부가치의 지속적 유지
법인격 변화를 위해 향후 필요한 요인	1. 법인격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체계 마련 (ex. 경제적 지원) 2. 집중교육 (법인격 전환단체/리더 매뉴얼 교육)	1. 법인격전환을 위한 비영리단체의 행정절차 간소화 (ex. 임의단체에서 회계단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님) 2. 향후 공적지원금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 비영리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소소한 영리적 특성 일부 인정	1. 행정단체의 법적 보호 2. 사회 인식적 변화 3. 경제적 지원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단체의 지배구조와 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 지배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한 탐색적 연구임.
 - 이를 위하여,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문화예술단체들의 지배구조와 특징, 형태 등을 살펴보았음.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수단지원사업과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지원한 단체들의 법인격 현황에 대해 분석함. 셋째, 관련 법인격 유형구조에 대해 관련자 인터뷰를 통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해 왜 문화예술단체들이 그러한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사함.

- 예술분야의 지배구조에 대해 선행연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내 문화예술단체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전국 1,262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임의단체가 797개 단체, 사단법인이 343개 단체, 재단법인 118개 단체, 협동조합 4개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간담회에 따르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1.3% 수준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고 있었음.
 - 셋째, 전문예술단체의 법인격 형태는 크게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사단/재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주식회를 포함한 영리법인 등으로 구분되어짐.
 - 넷째, 각 지배구조 유형별 사례로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경계없는예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안양문화예술재단’, ‘부천문화재단’, ‘드림위드앙상블’등에 대해 살펴보았음.

-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8년, 2019년 연수단지원사업과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대해 지원한 단체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음.

- 연수단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은 임의단체의 비중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사업자가 28.2%로 두 유형이 전체의 약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반면, 2019년은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29.7%로 가장 많았고, 사단법인의 비중이 2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임의단체는 2018년에 비하여 비중이 줄어들었음.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은 개인사업자가 36.3%, 임의단체 35%로 전체 대비 약 7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9년은 개인사업자 32.5%, 사단법인 24.6%,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22.7%로 나타나 2018년에 비하여 임의단체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또한, 단체 유형별 법인격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각 사업별 지원단체 유형에 따라 법적 유형의 비중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단체 중 3개 단체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개인사업자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사례인 트러스트무용단과 임의단체로 운영 중인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오라토리오에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 결과, 첫째, 예술단체들의 설립 초기 자금 부족, 단체 규모 등에 따라 법인격이 결정되고 대부분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로 설립됨.
 - 둘째, 예술단체들의 법인격 전환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법인격전환을 위한 행정교육과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셋째, 예술단체들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서는 사회이사제 도입 혹은 자체평가지원금 지원을 통해 철저히 내부 지배구조 평가체계를 만드는 방식을 제시

제2절 시사점

-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문화예술단체들의 법인격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대부분의 지원 단체의 법적유형이 개인사업자와 임의단체로 나타나는 이유는 문화예술인들이 초기 단체를 설립할 때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고, 법인설립을 위한 행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개인사업자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트러스트무용단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초기에 법인격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환 절차에 큰 부담을 느꼈음. 해당 사례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노동부와 예술경영센터의 컨설팅으로 이러한 컨설팅 없이 단독으로 법인격을 전환하는 것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어려웠을 것으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적합한 법인격 유형 설정과 전환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생할 수 있도록 영리구조 확보가 필요함.
 - 대부분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등 재정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고 법인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문화예술단체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분야별 장기·집중지원을 통해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단순히 법인격을 전환하는 방향이 아닌 사회이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의 고려가 필요
 - 법인격 전환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이득이 없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법인격을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 건

전한 지배구조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단순 법인격 전환 이외에 사회이사제 도입 혹은 자체평가지원금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지원금의 경우 현재 장착자 지원금과 별도로 평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본 연구는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탐색적인 연구로 전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이 아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중 연수단지원사업 및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에 지원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인터뷰 조사 역시 일부 법인격 유형에 대해서만 실시되어 향후 문화예술단체들의 장르 유형과 법인격 유형에 따른 다양한 단체들에게 추가적인 인터뷰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1. 경계없는예술센터. (2010). 연차보고서
2. 경향신문. (2019). 이윤택 징역7년 미투 후 첫 실형, 윤설희 기자 7월 24일자
3.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전문예술법인단체 개선 간단회 자료집.
4. (사)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 (2019). <http://www.gsymphony.org/>
5.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2019). <https://www.biaf.or.kr:47436/kr/sub.html?pid=16>
6.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즈양상블. (2019). <http://www.dreamwith.or.kr/s01/s06.php>
7. 서울프린지네트워크. (2009).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독립예술과 공공예술의 경계를 넘다, 연차보고서
8.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2019). <https://www.gokams.or.kr:442/artssdb/main/main.asp>
9. 이상철. (2002). 기초자치단체 문예회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바람직한 행정관리 주체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11(3), 193-218.
10. 이상철, 고수정, & 장철영. (2006). 조직운영주체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문화예술 회관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29-449.
11. 이창민. (2014).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주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1-61.
12. 이창민. (2015). 문화예술기관 운영주체, 지배구조, 관리체계상의 특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7(3), 817-851.
13. (재)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2019). <http://www.ayac.or.kr/main/main.asp>
14. (재)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2019). <http://www.bcf.or.kr/main/main.act>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2019). <http://www.arko.or.kr/main.do>

부록: 예술단체 지배구조 조사설계 연구 인터뷰지

-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지배구조 실태를 파악하고, 법인격 유형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문화예술단체의 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탐색하기 위함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서 본 인터뷰에 진솔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전과 새로운 도약으로 문화예술에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이선영 드림

** 전문예술법인단체 법인격 지정형태

법인격 유형	
1.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2월 기준, 사단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 343개 일정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민법 제32조, 기타 특별법 근거)
2. 임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2월 기준, 임의단체 총 797개 설립자 및 재산 등 임의로 구성되어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로 변질될 수 있는 구조 수익발생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발생
3.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2월 기준, 재단법인 총 118개 일정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 인정단체
4. 사회적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내외(예술경영센터 2019년 기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조합원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 목적
5.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면세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

SQ1.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예술단체명을 쓰시고, 위에서 언급된 법인격 형태 중 본인의 예술단체가 속한 법인격 유형이 무엇인지 기술해주세요.

(예시: 협동조합 코리아콤파오케스트라 / 법인격: 협동조합)

SQ2. 소속 예술단체의 설립배경을 기술해주시고, 왜 위와 같은 법인격 형태로 시작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주세요.

SQ3. 소속 예술단체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현재의 법인격 유형에서 다른 법인격 유형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소속 단체를 운영하시기에 현재 법인격 유형 구조가 가진 어려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SQ4. 소속 예술단체의 주요 수입발생처는 어디입니까?

(예시: 지자체 지원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공연문화 자체수익/ 후원회 등 구체적으로 기술)

SQ5. 소속 예술단체의 중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혹은 사무국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속단체의 조직구조 혹은 의사결정 지배구조를 기술해주세요.

(예시: 대표-> 이사회/운영자문회 -> 사무국 -> 공연팀)

SQ6.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